

**함정임 칼럼**



**추석에 만나는 이름, 이름들**

추석이면 거실에 빙 둘러앉아 송편을 빚는다. 어른께서 하루 전, 햅쌀을 불려 방앗간에서 뿔이 다 놓으면, 집안의 힘센 남자들은 뜨거운 물을 부어 치대며 반죽을 하고, 반죽이 끝나면 모두 동그렇게 지리를 만들어 앉아 깨송편·속송편 손끝으로 빚어내며 도란도란 이야기꽃을 피운다. 매년 두 차례, 명절 전날 어김없이 펼쳐지는 풍경이다.

추석에는 송편을, 설날에는 만두를 빚는다. 송편이든 만두든 한 켠 두 켠 광주리를 채워 나가는 동안 이야기는 그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가족이 머물고 있는 뉴욕으로, 파리로, 베를린으로, 부산으로 달려가기도 하고, 각자 일터에서 겪은 에피

소드들로 옮겨 가기도 한다.

올 추석, 송편 빚기에서 내가 가족들에게 꺼낸 이야기는 이름에 관한 것이다. 나를 비롯한 가족 구성원 대부분이 학교에 재직하고 있어서 가족사 만큼이나 겪는 내용이 비슷하다. 최근 내가 일상에서 접한 새로운 사안은 개명(改名)의 현실이다. 개명 시간에 출석부를 부르다 보면, 내가 아는 일과과는 다른 이름의 학생이 대답을 한다. 그런 경우가 몇 년 전에는 한두 명이던 것이 올해에는 부쩍 늘었다. 개명법이 간소화됨에 따라, 스무 살 이름의 학부 학생들에서부터 마흔이 넘는 대학원 단학도에 이르기까지 개명은 이제 하나의 현상이 되고 있다.

누구나 한번쯤 다른 이름으로 살아 보기를 바란 적이 있을 것이다. 나도 예외는 아니었다. 혹시 현재의 내 부모는 가짜이고, 어딘가 내 진짜 부모가 살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의문이 가슴속에서 비죽이 솟아나기 시작하고, 주어진 세상에 반항심이 싹트기 시작하던 열여섯살 무렵, 내가 제일 먼저 한 것은 내가 직접 내 이름을 짓는 것이었다. 필명이었다.

시인이나 소설가를 꿈꾼 적은 없으나, 나는 백지에 무엇인가를 늘 쓰고 있었고, 국어선생님의 눈에 띄어 백일장에 나가곤 했다. 글을 써서 상을 받는 것보다 풍광 좋은 야외에 나가 흘러가는 구름을 바라보고, 살랑거려듯 다가와 뿔을 스치고 지나가는 바람을 느낄 수 있어 좋았다.

나는 자연과 하나가 된 그 순간의 감정을 백지에 흘려놓려 썼고, 함께 간 문예반 친구는 열심히 의미를 지어 내려다가 포기했다. 나는 스케치하듯 쓴 글자들을 친구들에게 나눠 주었는데, 공교롭게도 큰 상은 아니지만 모두 자잘한 상을 받았다. 우리는 의기투합해서 각자 발명가의 심정으로 필명을 하나씩 고안해 냈다.

내가 먼저 운을 댔다. 이제부터 '나는 풀이다.' (草我) 옆에 있던 친구가 덩달아 외쳤다. '나는 별이다.' (星我) 풀과 별의 이름을 가만히 듣고 있던 마지막 친구가 그럼, '나는 물이다' (水我)라고 덧붙혔다. 내가 주축이 된 그날의 작명 사건은, 나라는 존재가 정작 나의 개인 없이 세상 사람들로 부터 불려온 이름으로부터 '내가 생각하는 나', '내가 우주 자연 속에 기리는 대상으로서의 나', 그리

하여 '내가 그렇게 되고자 하는 나'의 표현을 최초로 적극적으로 시도한 것이었다.

고등학교 때의 필명은 대학을 거쳐 작가로 데뷔하는 순간까지 함께했다. 내가 필명을 지을 마음이 발동한 것은 백일장에서 제목을 쓰고 그 아래 이름을 쓰는데, 글자와 어감이 어딘지 옛날스럽다고 느꼈기 때문이었다. 나는 새로운 것을 원했다. 새로운 것이라 누구도 먼저 스친 적 없는 어떤 것이었다. 내가 내 이름을 느꼈던 옛날스러움은 개화기 신소설에 여주인공의 이름으로 등장하는 '전근대적'인 것과 같은 맥락이었다.

친구들과 필명을 지어 서로를 부르던 열일곱살 시절, 새로운 무조건 낯선 것, 먼 곳에 있다고 고집했었다. 자기 자신이야말로 하루하루 성장하는 새로운 존재라는 것을, 그리고 그것은 고유한 것, 아득한 곳에서 비롯되고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했던 시절의 착각이었다. 필명을 한번 지어 봤다는 것으로, 그것으로 십 년 이상 일기나 편지·습작시 같은 사적인 글에 서명(書名)을 했다는 것으로, 나는 누구보다 이름과 이름이 거느린 세계에 민감하게 반응했다.

작가가 되는 순간, 지기 어린 필명을 내려놓고 전근대적이나마 웅숭깊은 본명을 공식화했다. 이름 짓기의 욕망은 매년 새롭게 시작하는 소설의 인물들로 옮겨 갔다. 조금 과장하면, 주인공에게 어떤 이름을 부여할 것인가, 철수와 부를 것인가, 토마스라 부를 것인가, K라 부를 것인가에 따라 소설의 내용과 형식 또는 분위기가 결정된다고 할 수 있다.

이름을 바꾸는 행위, 그것은 자신의 존재감과 정체성, 나아가 자신의 뿌리를 근본적으로 되돌아 보고, 적극적으로 미래를 탐색하는 일이다. 추석 한가위, 친지 가족들이 정형시의 각운처럼, 랩의 라임처럼, 한 글자만 다른 가계(家系)의 이름들이 모처럼 한 자리에 모여 앉는다. 해마다 추석 명절을 맞아, 문청들에게 나누는 과제가 있다. '내가 눈앞에 보고 있는 저 사람은 누구인가?'에 대한 단편적 글쓰기가 그것이다. 인물 채집인 셈인데, 누구를 쓰든 자유이되, 빼트리면 안 되는 것은 그 사람의 고유한 이름이다. 추석 이후, 어떤 이름의 사연들이 초대되어 울지 사투기 대된다.

(소설가, 동아대 한국어문학과 교수)

**광주도시공사, 빛고을CC·상무골프연습장 매각키로**

**지방공기업 '민간이양' 포함 전남개발공사 땅끝호텔도**



광주시 남구 노대동 빛고을CC(골프장·골프연습장·사진)와 상무골프연습장, 한옥호텔인 여수 오동재와 영암 영산재, 해남땅끝호텔 등이 매각 절차를 밟게 된다.

광주도시공사는 24일 "행정자치부가 발표한 지방공기업 민간이양 사업 대상에 빛고을CC와 상무골프연습장이 포함됨에 따라 향후 양 사업장을 매각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광주의 사업장은 재산 규모가 커 중장기 매각 대상으로 선정됐으며, 매각 기간은 조만간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행정자치부는 이날 지방공기업 정책 위원회를 열어 공공성이 낮고 민간경제를 위축시킬 우려가 있는 16개 지방공기업의 23개 사업을 지방공기업 민간이양 사업으로 확정·발표했다.

광주도시공사는 정부 방침에 따른다는 것이 기본 방침이지만 광주·전남지역에 이미 2곳의 골프장이 매물로 나와 있는 상황인데다 빛고을CC는 초기 투자비가 558억이나 돼 매각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빛고을CC는 광주시가 애초 빛고을노인건강타운의 운영비를 지원하기 위한 시설로 추진했지만, 광주도시공사측이

준공 다음해인 2011년 지방공기업의 성격과 맞지 않는 시설이라고 판단해 매각을 추진했으나 3차례 유찰 끝에 무산됐다.

상무골프연습장은 1996년 준공 당시 사업비는 146억원이 투입됐으나 20년이 지난 현재 지가 상승으로 인해 재산 가치가 500억원대에 달할 것으로 추산되기 때문에 역시 매각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오동재 등 전남개발공사 보유 3곳의 숙박시설은 최근 자체적으로 매각에 나서지만 응찰자가 없어 실패했다. 개발공사 2차 입찰공고를 내기로 한 이상 공매나 수의계약을 통한 매각은 시간문제지만 '혈값' 매각 우려도 있는 것이 사실

이다.

오동재는 2만7601㎡ 부지에 사랑채 본관을 포함한 7개동 40객실 규모다. 전통혼례청, 한식당 등의 부대시설을 갖추고 여수세계박람회 개최에 앞서 2012년 4월에 개관해 현재까지 운영 중이다. 영산재는 1만8579㎡ 부지에 7개동 21객실 규모로 전통문화체험관, 전통혼례청, 연회장, 한식당 등의 부대시설을 갖추고 2011년 9월부터 운영 중이다. 해남 땅끝 호텔은 90객실 규모로 개발공사가 지난 2010년 민간 사업자에 35억원에 매입해 47억원을 들여 리모델링했다.

채희정기자 chae@kwangju.co.kr /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장 '몸만 왔다'**

**한전 등 9개 기관장, 주소 이전 안해...관사도 타지역**

나주시에 있는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13개 가운데 9개 기관 기관장이 아직도 수도권에 주소를 둔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황주홍 의원이 나주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으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9개 기관 기관장이 주소를 관사가 아닌 수도권의 본가에 두고 있다. 관사도 혁신도시가 아닌 광주 등 다른 지역에 있어 이전 취지에도 어긋난다는

계 황 의원 지적이다.

한국전력은 관사를 광주에 두고 있으면서 기관장의 주소는 서울에 있고, 한전 KDN도 역시 광주에 관사를 두고 기관장 주소는 경기도 고양시로 돼 있다.

한전KPS와, 전력거래소도 이 공식을 따라 광주와 서울이다. 농식품공무원교육원(관사 나주-주소 서울), 농수산식품유통공사(광주-용인), 문화예술위원회(나주-서울), 콘텐트진흥원(나주-성남),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과 국립전파연구원

(광주-서울)도 마찬가지다.

인근에 관사와 주소를 모두 둔 곳도 있었다.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도 광주에 관사를 두고 주소도 광주로 옮겼다. 농어촌공사도 화순에 관사를 두고 주소를 옮겼다. 관사와 기관장 주소가 모두 나주인 곳은 우정사업정보센터, 농촌경제연구원 뿐이었다.

황 의원은 "기관장들이 모범을 보여야 한다"면서 "지역 인제 채용은 물론 임직원이 앞장서서 지역 이전 취지를 살려야 한다"고 주문했다.

박지정기자 jkpark@kwangju.co.kr

**박근혜 대통령 오늘 미국행 유엔개발정상회의 등 참석**

박근혜 대통령은 오는 25~28일 미국 뉴욕의 유엔본부에서 열리는 와 제70차 유엔총회에 참석하기 위해 25일 출국한다. 박 대통령이 총회 참석차 유엔본부로 찾은 것은 지난해에 이어 두번째다.

이번 총회는 유엔 창설 70주년을 맞아 160여명의 국가원수와 정부 수반이 대거 참석할 예정인 만큼 박 대통령의 정상외교는 북한의 장거리로켓 발사나 4차 핵실험 등 추가 도발을 억지하는데 초점이 맞춰질 전망이다.

**아리랑, 중요무형문화재 제129호 지정**

한민족의 희로애락을 담은 민요인 아리랑이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거쳐 국가지정 중요무형문화재 제129호가 됐다 문화재청이 24일 밝혔다.

지난 7월 중요무형문화재로 지정 예고됐던 아리랑은 '향토 민요 또는 통속 민요로 불리는 모든 아리랑 계통의 악곡'을 지정하며 전국에 전승되는 모든 아리랑을 포함한다.

문화재청은 아리랑이 광범위한 지역에서 다양한 주제가 부르고 있다는 점을 감

안해 특정 보유자와 보유단체를 인정하지 않았다.

이는 보유자와 보유단체 없이 중요무형문화재로 지정할 첫 번째 사례로, 문화재청은 지난해 1월 보유자 없이 중요무형문화재로 지정할 수 있도록 문화재보호법을 개정한 바 있다. 다만 지자체에서는 지역의 정체성을 지닌 아리랑을 시·도 무형문화재로 지정하고, 전승에 힘쓰는 개인이나 단체를 보유자로 인정할 수 있도록 했다.

연합뉴스

**밝은광주안과** 의원

# 당뇨망막병증

당뇨병으로 말초혈관 장애가 발생해 시력이 감소하는 눈의 합병증입니다. 당뇨환자는 정밀안저 검사를 통해 당뇨망막증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 치료 방법  
중증성 당뇨망막병증이 심해 안구 내 망막출혈이나 유리체에 출혈이 발생한 경우 레이저를 이용해 치료하거나 유리체절제술을 시행합니다.

**1566-9988**  
신세계백화점 대각선 맞은편 눈모양빌딩을 찾으세요

진료내과: 소아일 / 라식 / 라섹 / 백내장 / 녹내장 / 망막 / 눈성형 / 노안

신세계백화점 대각선 맞은편 눈모양빌딩을 찾으세요

신세계백화점 대각선 맞은편 눈모양빌딩을 찾으세요

시엘병원 보건복지부 지정 배아생성의료기관

의료광고심의망 제150204-중-68156호

# 아이소망

시엘병원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체외수정기술 | 산부인과 복강경수술 | 습관성 유산 · 종합건강검진센터

www.clwhivf.com | www.시엘병원.com ☎(062)368-1700